

불교와 미래경영 학술연찬회

“자본주의 병폐 치유약은 불교경영”

부처님 당시 불교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일어난 신중 '장자' 계급이 뒷받침됐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올바른 경제활동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남겼다. 현대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불교적 경영에 대해 모색하는 학술연찬회가 개최됐다. 불교연구원은 11월 6일 서울 잠실 불광교육원에서 '불교와 미래경영'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윤성식 고려대 교수,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 안중상 삼성경영연구소 대표 등 경영학자들이 발제자로 나섰다.



윤성식 유필화 안중상

불교연구원 11월 6일 개최
윤리경영의 경영이론 제시
노사·고객만족 분야 집중

윤성식 “불교경영만의 패러다임 있어야”

윤성식 고려대 교수는 “불교는 종교이지만 기독교처럼 전지전능한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경영학이 그동안 모든 학문을 끌어들이며 기업경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융합을 시도해왔. 마지막 남은 영역인 종교에 관심을 갖는다면 연구방법과 이론법에 의해 세상이 작동한다고 보는 불교야말로 참고할 만한 종교”라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이어 불교경영학의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윤리경영이 불교교리와 맥이 닿아있지만 이것이 불교경영학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기독교인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다. 불교경영학은 오직 불교만이 제시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교육훈련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등 내부 통제제도 제시는 불교경영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불교경영학의 특

의 가르침은 바람직한 기업문화 정립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불교 내의 자유스러운 토론문화, 또 평등한 불교인간관에 기반한 노사관계,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자리아타에 기반한 고객만족 등 활용 가능한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끝으로 “기업의 성과와 기업에서의 생활이 대다수 중생의 행복 또는 고통의 큰 몫을 차지하는 현재 상황에서 불교는 현대의 기업경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중상 “장경호 거사의 동국제강 불교경영이 선례”

안중상 삼성경영연구소 대표는 여기에 대일 장경호 거사의 실제 경영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안 대표는 “대일 장경호 거사는 일제시대 관권적 개입 등 악조건에서도 가마니 장사를 했다. 특히 농민들에게 제 값을 쳐주고 성실과 근면으로 인해 일본상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나 갔다”며 “이러한 전통은 동국제강에서도 특유의 가족적 노사관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동국제강은 1993년 노조의 자발적인 증산운동에 사측의 성과급 보상에 이어 1994년 산업계 최초 항구적 무파업 선언과 11년간 무교섭 전통이 생겨났다. 전체직원 15%인 200여 명이 가족사원이며 최고경영자는 한달에 두세 번씩 공장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는 창업주인 장경호 거사가 심어놓은 불이와 인화의 정신이 꽃핀 것”이라며 “불교의 생활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색으로 △연기적 시각 하에 문제해결 △중도적 사고와 행위 △끊임없는 이론 생성과 소멸 △정념 소지한 의사결정 △기업이 극대화 아닌 공공까지 극대화 추구 △자비에 근거한 관계 등을 들었다.

유필화 “기업문화·노사관계 고객만족에 활용”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른 소통의 경영 철학을 불교경영학으로 제시했다. 유 교수는 “많은 경영학자들은 훌륭한 회사와 평범한 회사를 구분 지을 때 기업문화를 본다”며 “불교

고판화로 하나 되는 한 중 일

중국 베이징대 11월 27~30일까지 고판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중국 북경대학에서 한·중·일 고판화학술대회가 열린다. 중국 북경대학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중일 고판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와 전통판화시연회 및 고판화관련지 답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과 10월 한국 고판화박물관과 일본 동경 국문학연구소에서 열린 고판화국제학술대회의 연장선상이다. 이번 대회는 2012년 제3회 원주 고판화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한·중·일 학자들이 뜻을 모아 발족한 동아시아 고판화연구회가 주축이 돼 마련됐다. 한·중·일 삼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는

고판화 국제 학술대회는 특히 민간 차원에서 고판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선학 고판화박물관 관장의 ‘한중일 고판화 연구의 현재와 미래’ △박도화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의 ‘조선시대 불화에 미친 불교 판화의 영향’ △원연시(翁連溪) 중국 베이징 고궁 박물관 연구원의 ‘중국 궁정판화의 연구’ △이리구지 아쓰시(人口敦志) 일본 국문학 연구자료관 교수의 ‘일본 삽화판화의 연구’ 등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중국 수



2014년 한국에서 열린 고판화 국제학술대회

도박물관 대장경 전진기지, 중국 인쇄박물관 등을 답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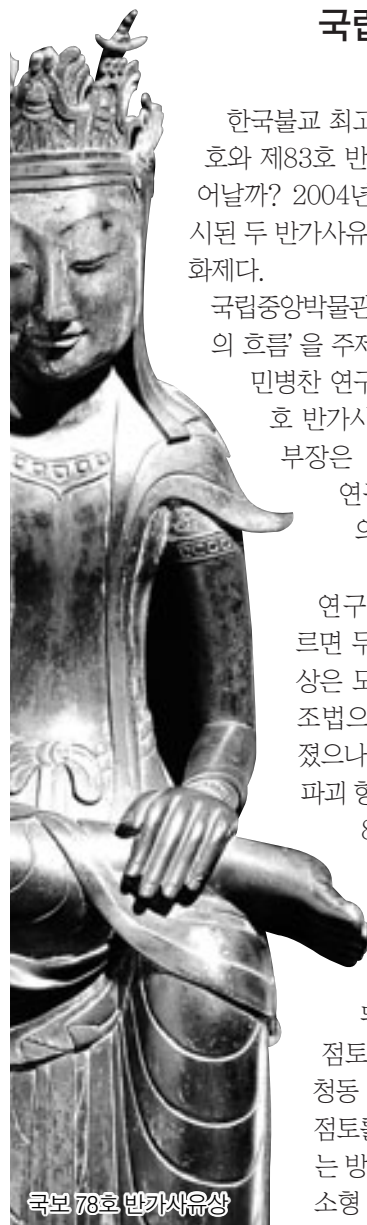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한선학 한국고판화학회 회장은 “삼국의 고판화 전문가들이 협력해 동아시아가 세계 속에 자랑하는 인쇄문화의 꽃인 고판화를 다시 한번 꽃피우면 한다”고 기대했다.

노덕현 기자

국보 반가사유상, 차이 아시나요?

겉보기에 단순한 83호에 고차원 주조법 쓰여

국립중앙박물관 ‘고대 불교조각의 흐름’ 심포지엄



국보 78호 반가사유상

한국불교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국보 제78호와 제83호 반가사유상 중 어느 것이 더 뛰어나 않을까?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전시된 두 반가사유상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나와 화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10월 30일 ‘고대 불교조각의 흐름’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민병찬 연구기획부장은 국보 78호와 86호 반가사유상을 비교했다. 여기서 민 부장은 ‘금동반가사유상의 제작방법 연구’를 통해 83호 반가사유상의 주조기술이 우수하다고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두 반가사유상은 모두 밀랍주조법으로 만들어졌으나 육안 관찰과 감마선 사진, 비파괴 형광분석 등에서 기술적인 면이 83호 반가사유상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밀랍주조법은 흙으로 불상의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밀납을 얹혀 조각한 뒤 점토를 덧씌우고 열을 가해 점토 밑의 밀납을 빼낸다. 여기에 청동 쇳물을 부어 식혔다가 바깥의 점토를 깨면 완성된 불상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삼국시대 대부분의 중 소형 금동불이 이 밀랍주조법으로

제작됐다.

78호 반가사유상은 머리와 몸체, 원발의 연화좌(연꽃 모양으로 만든 불상 자리) 등 세부 부분을 따로 만든 뒤 이어붙였지만 83호 반가사유상은 머리와 몸체를 한꺼번에 제작했다. 또 83호 반가사유상은 78호 반가사유상보다 쇳물이 세밀하게 들어갔다.

이는 제작 초기 흙으로 불상의 형태를 만들 때 83호 반가사유상은 입자가 큰 사질점토를 내행토로 사용해 내부 공기가 원활히 배출됐고 불상의 두께가 두꺼워 쇳물이 잘 흘러들어 갔기 때문이다.

민병찬 연구기획부장은 “주석이 5% 가량 함유된 청동을 재료로 한 점에서 비슷하지만 내부 공기 제거, 쇳물의 유동성 확보, 내행토를 확실하게 고정시킨 철심 등의 장치를 한 83호 반가사유상의 기술이 더욱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 이전 10주년 기념특별전 ‘고대불교조각대전-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를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i.com



국보 83호 반가사유상

“설악산문, 한국선종의 전통 이어와”

홍사성 주간, 4일 ‘설악불교의 귀원정중’ 세미나서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오른쪽 사진)은 대각사상연구원이 11월 4일 속초 신홍사에서 개최한 ‘설악불교의 귀원정중’ 세미나에서 “설악산문은 도의 국사 이후 한국 선종의 성지로 인식돼 왔으며, 설악산은 훌륭한 선적 전통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홍 주간은 <설악산문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도의선사가 첫 법석을 펴 9세기 이후 13세기까지 설악산문에는 많은 고승들이 활동했으며 특히 선승들은 도의영탑 참배 등을 통해 진전사를 해동선종의 조종사찰로 삼았다”고 말했다.

홍 주간에 따르면 당시 고승들은 진전사를 찾아 일정기간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즐겨했다. 설악산문의 흥척국사와 봉림산문의 진경심희선사도 설악산에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홍 주간은 “설악산은 수행자들이 한철 이상을 살고자 했던 수행처였음을 의미한다. 굳이 설악산을 선호한 것은 도의선사가 전래한 남종선의 근분도량이자 성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나말여초 선림의 인물인 홍척, 수철, 무연, 심의화상 등을 비롯해 영거, 체징, 홍각선사 등이 활동했다. 일련선사는 설악산 진전사로 출가한 뒤 가자산문의 고승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주간은 이러한 역사와 전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주간은 “아무리 화려한 과거라도 전통을 잊지 못하면 허망한 전설일 뿐”이라며 “전국 최고의 선원 운영, 기본선원 유지 등을 통한 전통계승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악불교의 귀원정중> 세미



사상

나는 속초 신홍사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이 2014년 조계종립 기본선원 조실로 추대되며 신홍사가 조계종의 사원사찰임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다. 신홍사 성립을 시작으로 신홍사 중창조인 성준스님, 신홍사 포교 활동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명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11월 23일

◆개강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청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문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학교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